

공익적시민활동을 지원하는



thank-you letter

준비
3호

2010년 7월

발행인 풀뿌리사람들 발행일 2010년 6월 5일 홈페이지 www.pool.or.kr

전화 042.223.9924 팩스 042.222.0906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 248-271

풀뿌리가 희망입니다!

풀뿌리사람들은 공익적 시민활동을 지원하는 중간지원기관으로 지역재단운동을 지향하는 사단법인입니다. 100개의 마을주민조직, 100개의 사회적기업, 100개의 공익활동네트워크, 100인의 풀뿌리지도자를 만들기 위해 공익적 시민활동을 지원합니다. 생활에 기초한 대안 공동체운동을 열어갑니다. 마을과 일터 속에서 믿음과 희망을 만듭니다.



새로 취임한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민선5기 지방자치가 출범했습니다.

공직자들이 새로운 희망을 선포했으니 열심히 일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사람들의 신뢰와 기대를 숫자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시작 되는 선출직 공직자의 자리는 매우 고되고 어려운 길입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가치의 배분에서 우월적 의사결정권을 갖는 사람임으로 권력자의 위치에 선 것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일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굉장히 고된 사람 만나기와 감정노동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어떤 결정이든 모두를 만족 시킬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일정한 시점에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일도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며 신입여부를 다시 물어야 하는 일을 반복한다는 것도 범인들은 꿈꾸기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다수 대중의 삶을 나아지도록 만드는데 기여하겠다는 결심이 단단하지 않다면 자신의 입신양명 의지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압니다.



김제선

(사)풀뿌리사람들 상임이사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재선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재선이 보인다는 것을 기억하자는 것 입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개입된 순간 그 사안이 지닌 원래의 목적이 정치적 계산으로 뒤틀리는 목적전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재선되어야지 하는 사심이 드러나면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을 또 써야만 되겠다는 바람이 저절로 생겨나게 만들어야지 억지로 끌고 가려는 의도가 두드러지면 역작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주민이 만족할 때 나도 만족한다는 섬기는 마음으로 일하면 저절로 재선되지 않겠습니까!

선거에 표를 얻고자 일하는 사람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주민을 위하는 사람이라는 칭찬을 듣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을 위하는 사람이 되는 방법은 당신들이 아니라 주민이 결정하고 집행하고 평가하도록 만드는 것이 제일 좋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풀뿌리사람들, 이렇게 일하고 있어요!

* 풀뿌리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을 간략하게 전합니다. 지역의 공익적 시민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기부와 봉사료 함께 참여해주시는 한 분 한 분 덕분에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풀뿌리사람들 홈페이지 www.pool.or.kr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협동과 나눔의 경제 :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

사회적 경제 Youth 리포터

대학생들로 구성된 리포터들이 대전지역 사회적 기업 및 단체들을 방문하여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에게도 지역의 사회적 기업을 알게 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도농 직거래 모임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모여서 도농 직거래 시스템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갖었습니다. 6월에는 감자를 거래하였고, 7월에는 옥수수를 거래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젊은 사회적 기업가 아카데미

6월에는 20대 청년 사회적 기업으로 알려진 Touch4Good의 박미현 대표님, 풀뿌리사람들의 이사이신 목원대학교 권선필 교수님, 사회적 기업 '노리단'의 김종휘 단장님이 오셔서 기업 운영에 관한 생생한 이야기, 사회적 기업가의 마인드에 대한 조언 등 감동적인 이야기와 따끔한 조언을 해주셨어요.

아카데미에 참여한 친구들에게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할 수 있는 계기

사회적 경제 세미나1.

커뮤니티비즈니스와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 경제 세미나 첫 번째 시간으로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진행했습니다. 건국대학교 김재현 교수님을 발제자로 모셔 커뮤니티비즈니스가 무엇이고 정부에서 진행하려는 방향과 진행되고 있는 시범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습니다.



토론자로는 목원대학교 권선필 교수, 박정현 대전시의원, 송치영 대전광역시 경제정책과 담당, 민양운 대전여민회 사무처장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 날 비가 많이 와서 오시는 분들이 발길을 돌릴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걱정이 무색하게도 교육장을 가득 메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풀뿌리사람들, 이렇게 일하고 있어요!

* 풀뿌리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을 간략하게 전합니다. 지역의 공익적 시민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기부와 봉사로 함께 참여해주신 한 분 한 분 덕에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풀뿌리사람들 홈페이지 www.pool.or.kr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비즈니스와 지역화폐 활동 지원사업] 총 7단체(모임) 지원

이번 배분사업의 목적은 '커뮤니티비즈니스'와 '지역화폐'라는 나눔과 협동의 경제생활을 통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생활기반 강화를 지원하기 것입니다. 6월 한 달간 지역의 풀뿌리 단체(모임)들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지원 여부를 결정하였고, 지원된 사업은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됩니다.

- 관저품앗이 <관저마을까페 오픈>
- 다모아지역아동센터 <다모아 품앗이 나누기 사업>
- 대전여민회 <마을 까페를 돕는 마을 베이킹 강좌 '빵굽는 마을, 빵빵한 이웃' >
- 대전여성회준비위원회 <여성들이 만들어가는 지역사회-상상공장>
- 마루어린이도서관마루 <공동체화폐 '복' 활성화 프로젝트 - 복 지으세, 복 전하세>
- 알짹마을어린이도서관 <마을 돈으로 그리는 성장학교>
- 정림사회복지관 <정림 지역화폐은행>

풀뿌리, 시민운동 지원

<비영리경영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어요!

최근 비영리단체에도 '경영'이란 단어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비영리경영이 무엇인지, 일반 경영과는 무엇이 다른지, 내가 속한 단체에 경영이 필요한지 등 비영리경영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풀어보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지역의 기획위원이 구성되었고 비영리경영 컨퍼런스를 어떻게 구성하고 진행할지 논의 중에 있습니다. 10월 중순 대전에서 개최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나눔과 기부 : 사과나무씨앗기금

2010 로드스콜라 '제주 탐험'



사과나무씨앗기금을 통해 조순, 한부모 가정 10명의 아이들에게 <로드스콜라-제주탐험> 프로그램을 지원했습니다. 2박 3일간(6월16일~18일) 여행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우는 소중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 여행인솔 : 안여중(또래학교), 양인숙(품앗이사회학교 사업단)

- 사과나무씨앗기금 기부문의 : 풀뿌리사람들 키움지기
(042.223.9924)

자라나는 미래세대를 위한 <사과나무씨앗기금>을 소개합니다.^^

사과 속 씨는 몇 개인지 알 수 있지만 사과 씨 속의 사과는 몇 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사과나무씨앗이 싹터 우람한 나무로 자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사과나무 씨앗기금은 기부자와 참여자 모두가 성장하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상상력을 키우고, 희망의 열매를 맺도록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풀뿌리사람들, 이 일은 함께할수록 좋아요!

*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로 만들어가는 사업을 안내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풀뿌리사람들 홈페이지 www.pool.or.kr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함께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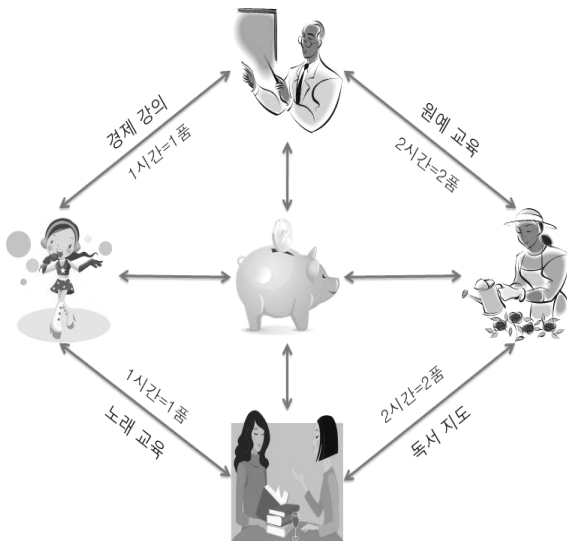
행복한 배움 공동체 **품앗이사회학교**는요?!

풀뿌리사람들은 2009년부터 대전 지역에 ‘품앗이를 통해 누구나 배우고 가르치는 배움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 <품앗이사회학교사업단>을 인큐베이팅하고 있습니다.

품앗이사회학교는 누구나 배우고 가르치며 즐겁게 참여하는 나눔의 교육 공동체입니다. 교육 화폐 <품> 거래를 통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애정을 가진 이들이 다른 이를 돕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생활공동체로의 전환을 지향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품>으로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다면?

<품>은 품앗이사회학교를 통해 배우거나 가르치는 일을 할 때, 사용하는 교육통화 이름입니다. 1시간을 배우려면 1품을 냅니다. 마찬가지로 1시간을 가르치면 1품을 법니다.



<품>의 특징

- <품>의 발행은 거래를 필요로 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 거래는 회원 간의 동의로 이루어집니다.
- 거래 내역은 전체 회원에게 공개됩니다
- 거래 내역은 각 회원의 계정에 (+) 또는 (-)로 기록됩니다
- 각 계정에는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 회원은 계정의 (+) 내용을 타 회원에게 기부, 양도할 수 있습니다

<품>회원가입 문의 / 042.223.9924

품앗이사회학교사업단 : 여름 시민강좌

7월 8일(목) 19시, “구글 완전정복”

7월 5일~8월 23일(매주 월) 19시, “멋진 내책 만들기”

7월 9일~7월 30일(매주 금) 19시, “생생한 인터뷰 글쓰기”

6월 24일~9월 30일(매주 목) 17시, “기타교실”



풀뿌리사람들, 이 일은 함께할수록 좋아요!

*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로 만들어가는 사업을 안내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풀뿌리사람들 홈페이지 www.pool.or.kr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품앗이사회학교사업단>

청소년 직업체험 참가자 모집! - “꿈 그리고 인터뷰”

- 참가대상: 중학교1학년 ~ 중학교 3학년
- 일정: 2010. 7. 26(월) ~ 2010. 7. 31(토)
- 모집인원: 선착순 20명
- 참가비: 30,000원 (취약계층은 무료)
- 구비서류: 취약계층 확인서, 참가신청서
- 문의처: 전화 042-223-9914(품앗이사회학교), 016-807-9835(담당자 육정임)
 메일 letschool@hanmail.net



○ 진행과정

날짜	시간	내용	비고
7.26(월)	14:00~18:00	-마음열기 -직업체험 입문(포트폴리오 만들기 강의)	이용원 (월간 토마토 편집장)
27(화)	14:00~18:00	직업멘토 인터뷰 (다양한 직업군의 직업멘토를 만나 일과 삶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	이정난(성심당 셰프)와 다양한 직업인 멘토 30인
28(수)			
29(목)			
30(금)			
31(토)			



☺ 참가자 모집

로드스콜라 ‘전주여행’

전주 한옥마을+전주 한지원
(한지 만들기 체험)

- 모집: 2010년 7월16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 일정: 2010년 7월 18일(일요일, 오전 8시 30분~오후 5시 30분)
- 대상: 초등학교 4학년 ~ 6학년 / 10명
- 참가비: 2만원 (하나은행: 629-910005-96304 풀뿌리사람들)
- 문의: 품앗이사회학교 양인숙, 송숙희 042-223-9914

※ 준비된 일정은 날씨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풀뿌리에 거름을 주신 기부자님

회원회비

강복심 강석영 강선란 고두환 고 연 고은아 고정호 곽현근 구장완 권부남 권수영 권태순 금홍섭 김가미 김대경 김동휘 김명경 김민경 김병구 김상환 김승식 김승훈 김용찬 김용희 김정순 김정옥 김종필 김주연 김태영 김태완 김학원 김형돈 김형숙 김홍곤 김효년 문경원 문국모 문창기 민완기 박건영 박두병 박미양 박범계 박성호 박순일 박승도 박영기 박용빈 박용삼 박원순 박정규 박정현 박현이 방미나 배상문 백대현 변규병 성광진 승광은 송인걸 송재관 송정모 송지윤 송충기 신정은 신해미 안규익 안여중 양인숙 유병구 유재일 유진숙 유효석 윤기석 윤미향 이동규 이명자 이민형 이상호 이성은 이성희 이덕수 이용원 이원종 이은석 이재우 이정구 이정석 이종민 이종석 이천우 이충재 이형철 이현주 이현주 이혜원 이효재 임장택 임정규 전문학 전병배 전성우 정윤경 점필정 정금성 정기룡 정선거 정재학 정종미 정현태 정환석 조미란 조미령 조연진 조원재 조원갑 조지영 조학원 차재영 최병조 최선희 최신웅 최영규 최예영 추명구 편수빈 한기윤 한진걸 황우택 황유미 황재학 황정현 주)바다디자인 주)씨앤디

이사회비 김용분 김충근 송인준 오수진 오현숙 장수찬

후원금 김택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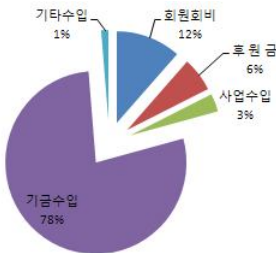
사과나무씨앗기금 김기욱, 김영주, 박은숙, 송인준, 안여중, 이민형, 최순임, 최연숙

기부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소중하고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은 연말 정산 기간에 발송됩니다. 이 전에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문의주세요. 언제든지 발송해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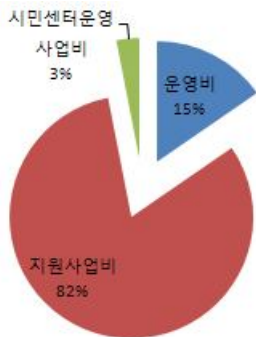
풀뿌리사람들 6월 살림살이

수입부



항목	금액	항목내용
회원회비	2,688,000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CMS, 이사회비 등
후원금	1,420,129	개별후원, 일시후원 등
사업수입	747,500	교육 참가비 등
기금수입	18,246,547	풀뿌리사람들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기부금, 타기관 지원금 등
기타수입	303,007	잡이익
합 계		23,405,183

지출부



항목	금액	항목내용	
운영비	인 건 비	1,787,040	풀뿌리사람들 급여 및 상여, 기타 인건비
	일반관리비	68,093	풀뿌리사람들 사무국 운영 관리비
	운영사업비	2,177,040	풀뿌리사람들 고유목적 사업을 위한 홍보, 교육, 회원행사등을 위한 사업비
지원사업비	품앗이사회 학교사업단	13,922,879	품앗이사회학교사업단 운영 및 사업비
	사회적경제	1,340,540	품앗이은행, 마을기업, 청년창업 등 사회적 경제 관련 지원사업비
	풀뿌리지원	2,117,270	풀뿌리단체, 시민사회단체를 위한 지원사업비
	배분사업비	4,013,190	심사 및 배분절차를 통해 지원처에 전달하는 직접적인 현금, 현물지원 등 배분사업비
풀뿌리시민센터 운영사업비	805,450	풀뿌리시민센터 유지, 관리를 위한 운영사업비 예) 전기, 수도요금	
합 계		26,231,502	

김용분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김용분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의 여섯 번째 주인공은 '문화 일꾼' 안여종(포레학교의대표)

이사님들의 릴레이 인터뷰를 잠시 뒤로하고 안여종 대표를 만나게 된 것은 얼마 전, 풀뿌리사람들 [사과나무 씨앗기금]으로 시행한 [로드스콜라 - 제주탐험]의 감동을 회원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이어 두번째 시행된 2010 제주로드스콜라는 안여종 대표께서 직접 후원자들을 모아 사과나무 씨앗기금을 조성하여 여행을 할 기회가 없었던 조손, 한 부모 가정의 아동들과 함께 한 뜻 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이번 여행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어릴 적 기억은 평생 동안 강하게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가슴속에 있었던 여행에 대한 로망!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갔다 왔다는 사실! TV에서 화면으로만 보면서 꾸었던 꿈! 이런 것들을 현실에서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것은 아마도 훗날 아이의 삶속에 깊은 의미로 남을 것 같습니다.

여행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여행을 떠나기 전에 아이들에게 의견을 물어보았더니, 한 아이가 도깨비도로에 가보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정상 그곳에 가는 것이 어려웠고, 또 그곳에 가려면 먼 길을 다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꼭 가보고 싶은 곳이었고, 데리고 가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돌아갔습니다. 여행이 끝나고 난 후 꼭 가고 싶은 곳에 선생님께서 데리고 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선생님으로부터 환상적인 서비스를 받았다는 기쁨이 아이의 성장과정에서 고마운 기억으로 평생 남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일은?

한 아이가 아이들 사이에서 어떤 문제로 인해 곤경에 처하게 되었는데, 그 문제를 저와 한 선생님이 잘 해결해주고 나니, 아이가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선생님 사랑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아마도 그 아이는 자신을 도와준 사람에 대한 고마운 기억을 소중하게 간직할 것입니다. 성장하면서 2명의 선생님이 늘 자신의 기억 속에 있겠지요.

이렇게 감동적인 여행을 하면서도 안여종 대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습니다. '준비가 부족했다고...' .성숙한 사람은 늘 겸손하니까요.

올해 로드스콜라를 위한 기금은 안여종 대표께서 직접 모금 하셨다면, 기금모금에는 어려움이 없으셨는지?

예. 지인들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당초에는 10명의 후원자를 통해 기금을 모금하려 했습니다만 후원자분들의 사정으로 기금이 전액 모금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금모금 과정에서 저의 부족함도 있었습니다. 잠재 기부자들에게 편지를 띄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라서 못했다는 기부자들도 있었습니다. 기부와 모금에 대한 구체적인 쌍방의 의사소통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포레학교' 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특정지역과 계층에 편중적으로 혜택을 준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주도적 체험학습을 지역의 저소득층 아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합니다. 마을단위나 가족단위 그리고 마을 도서관, 지역아동센터 등과 함께 수업과정 속에서 할 수도 있고, 동네탐험이나 구 혹은 시탐험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전여행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형태를 통해서 말이죠.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인터뷰.글 / 김용분 (풀뿌리사람들 모심지기 이사)

풀뿌리사람들, 7월에는 무슨 일이?

1일(목) NPO뉴스레터 news on 발송
 2일(금) 14시, 사회적경제세미나1. ♣
 - 커뮤니티비즈니스와 지역경제 활성화
 * 커뮤니티비즈니스와 지역화폐 활동 지원사업 공고 마감
 4일(일) [폼사 강좌] 동네공정여행 ♣
 (우리 동네 보물 찾기 - 유성시장, 온천 탐방)
 5일(월) 14시, 풀뿌리사람들 상반기 평가회의
 7일(수) 19시, 젊은사회적기업가아카데미 수료
 9일(금) 14시, 사회적경제세미나2. ♣ 대전지역
 호혜시장 형성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집담회

[폼앗이사회학교사업단 여름 프로그램] ♣
 7월 18일(일) 8시:30, 로즈스콜라-전주여행
 8일(목) 19시, 구글 완전정복
 7월 5일~8월 23일(매주 월요일)
 - 19시, “멋진 내책 만들기”
 7월 9일~7월 30일(매주 금요일)
 - 19시, “생생한 인터뷰 글쓰기”
 6월 24일~9월 30일(매주 목요일)
 - 17시, “기타교실”
 7월 26일~31일 (매일 2시~6시)
 - 청소년직업체험 “꿈 그리고 인터뷰”

♣ 표시는 풀뿌리사람들 회원 및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시기에 유익한 프로그램입니다.



(301-845)대전 중구 대사동 248-271 풀뿌리시민센터2층
 T.042.223.9924 F.042.222.0906
 홈페이지 www.pool.or.kr / grassrootdj@gmail.com



더운 여름철, 기부자도 튼튼! 풀뿌리도 튼튼!

남해산 마늘(100%)을 사용하여 숙성시켜
 냄새없고, 단맛이 나는 웰빙 식품

해두름흑마늘진액



해두름흑마늘진액 10포 / 15,000원



해두름흑마늘진액 30포 / 42,000원

풀뿌리사람들 후원기금 마련을
 위한 흑마늘 진액 판매!

10포 / 15,000원
 30포 / 42,000원

(주문 문의)
 풀뿌리사람들 042.223.9924
 홈페이지 www.pool.or.kr